

국립국어원의 언어 실태 조사

양명희

국립국어원 국어생활부 학예연구관

1. 언어 정책 기관과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합리화와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기관이다.¹⁾ 설립 직후 국립국어원²⁾이 대규모로 벌인 일은 8년에 걸친 대사전 편찬 작업(1992~1999)이었다. 대사전 편찬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어문 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달라진 국어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1970년에 시작된 규범 개정 작업을 실질적으로 완성했다는 점이다. 사전 편찬 이후로 국어원에서는 대사전 편찬 작업으로 뒤로 미뤄졌던 방언 조사, 음성 자료 디지털화, 기본 어휘 사용 실태 조사 등 개인이나 학회 차원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국가적 조사·연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언어 실태 조사 사업도 이런 국가적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사업 시작을 앞두고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언어학자, 사회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1)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 제5장 제34조(직무)

2) 이하 국어원으로 약칭.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실제 조사와 통계적 수치의 필요성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었다. 그렇지만 언어정책에서 당장 시급했던 것은 국민들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통일된 맞춤법과 국어의 표준화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인력은 여기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언어 사용에 대한 실제 조사와 통계적 수치의 확보 없이 만들어진 규범이 국민들의 호응을 점차 얻지 못하고 실제의 언어 사용과 규범이 서로 어긋나는 양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³⁾ 이처럼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필요성은 표준어 사정과 표준 발음 등 표준어 정책의 수립과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필요에 의한 연구원의 소규모 조사에 의한 성과물이 이미 몇 차례 발표되기도 하였다.⁴⁾

두 번째로 실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영역은 국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다. 영상 문화의 확산과 독서율의 저하 등은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의 국어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학생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학생들이나 성인들의 국어 능력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국어 교육의 질적 변화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어휘 구사력, 문장력 등을 측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 능력 측정 방법이나 자료는 일본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도 과학적 조사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인의 국어 능력의 현주소뿐 아니라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3) 새국어생활 제14권 제1호에는 표준어 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회 내용이 실려 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실태 조사를 통한 표준어 사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 예를 들면 ‘국어 교사의 표준어 사용 실태 조사 I, II’, ‘표준 발음 실태 조사’,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등이 이 범주에 드는 국어원의 발간물이다.

국어 능력의 저하를 경고하는 일 또한 언어 정책 기관인 국어원의 기능이다.

세 번째로 학문적 풍토의 개선을 위해서도 이러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언어학계는 지극히 이론 언어학의 측면에 머물러 있어 사회의 언어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미 서구에서는 언어 습득을 위한 아동들의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라든지 언어 변동의 요인 분석, 계층별·성별·연령별 언어 차이, 직업에 따른 언어 사용 등에 대한 연구 성과가 꽤 많이 쌓여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를 통해 사회 현상과 사회 변화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언어와 관련한 인간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언어적 동화 과정, 이민자들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 대한 추적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언어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계의 풍토는 이러한 연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없다.

네 번째로는 국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한 언어 의식과 문화 환경 변천에 관한 관심이다. 국어 문화라는 말이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국어’는 사회뿐 아니라 문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사람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들의 언어 의식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언어 정책에 대한 선호와 평가가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또한 대중 문화에 영향을 주는 대중 매체—인쇄물, 방송, 신문, 대중가요, 광고, 인터넷 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위의 네 가지 필요성은 결국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어문 규범 정책의 수립과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어 교육 정책의 기초 자료 확보, 한국인들의 사회 언어생활 규명과 언어 의식, 언어 문화 연구를 위해 제기된 것으로 언어 실태 조사·연구는 언어 정책 기관인 국어원

이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수행해야 할 국가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언어 실태 조사의 내용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국어원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대한 장기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장기 계획서에는 1장에서 제기된 조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과 인력에 따라 그 내용에 있어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언어 실태 조사 계획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국어원의 언어 실태 조사 계획에 대하여 크게 언어 규범의 측면과 국어 교육의 측면, 사회 언어적 측면, 언어 문화적 측면 이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관련된 주요 연구 자료가 있을 시에는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할 것이다.

2.1. 언어 규범의 측면 - 어문 규범 수용 실태 조사

언어 규범의 측면에서 조사될 어문 규범 수용 실태 조사는 국어원의 어문 규범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호응하는 효율적인 어문 규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어문 규범 수용 실태 조사의 주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어 수용 실태 조사
- 외래어 표기 사용 실태 조사
-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 표준 발음 사용 실태 조사
- 호칭어 · 지칭어 사용 실태 조사

표준어 수용 실태에 대한 통계적 조사는 표준어 사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인쇄물을 대상으로 조사된 빈도 높은 비표준어를 대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4·50대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사용 비율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를 4·50대로 제한한 것은 이 연령층이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또한 언어적으로 보수적인 연령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표준어 수용 실태 조사는 사용하는 어휘를 조사하는 것만으로 표준어 수용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다. 표준어에 대한 의식⁵⁾, 장면에 따른 방언과 표준어의 코드 스위치 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표준어 사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태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는 맞춤법이나 표준어보다 규범과 언어 현실의 괴리가 좀 더 심하다. 잘 지켜지지 않는 외래어 표기 사례를 수집하고 사례별로 사용 양상을 조사하여 외래어 표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는 해방 이후 이루어진 순화 작업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수용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순화어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 영어의 영향은 어휘뿐 아니라 음운, 문장에까지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으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언어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세대 간, 학문 간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순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위의 조사 중 국가가 약 10년의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발음 사용 실태 조사이다.⁶⁾ 1972년의 국어조사연구위원회의 조사와

5) 표준어에 대한 부분적인 의식 조사는 1997년 전국 국어 교사들의 표준어 사용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시행한 적이 있다(정희원, 1997).

6) 국어조사연구위원회(1972), 이현복(1987), 최혜원(2002), 김선철(2003) 참고.

1983년 학술원의 위탁으로 실시된 표준 발음 실태 조사는 1970년에 시작된 어문 규범 개정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 국어원에서 실시한 표준 발음 조사는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의 내용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시작한 작업이다. 이 결과가 실제로 어문 규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호칭어·지칭어 사용 실태 조사는 언어 규범의 범주보다는 사회언어적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언어 규범의 범주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1992년 문화부에서 고시한 표준 화법의 호칭어·지칭어가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표준 화법에도 수정이 가해질 수 있으며 새롭게 사용된 호칭어, 지칭어를 조사하고 새로운 언어 환경에 따라 새로 만들어서 써야 하는 호칭어, 지칭어도 조사될 수 있으리라 본다.

2.2. 국어 교육의 측면 - 국어 능력 조사

국어 능력 조사는 국어 화자들의 국어 표현 능력 및 이해 능력을 측정하여 국어 능력을 가늠해 보고 국어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고 국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⁷⁾ 교육부의 국어 능력 조사가 학생들의 기초적인 국어 능력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국어원의 국어 능력 조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수준의 파악뿐 아니라 개별적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까지 목적하고 있다. 현재 국어 능력의 측정은 대부분 시험지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데 국어원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에 힘을 예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말하기나 듣기 능력을 측정하는

7)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어 기초학력 평가 연구’(2000)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기초 학력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www.kice.re.kr 참조.)

도구를 개발하여 오랫동안 평가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오랫동안 평가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이나 도구가 학문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화용론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말하기, 듣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국어 능력을 조사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국어 능력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소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 유아의 언어 발달 조사
- 연령별 국어 능력 조사
- 문자 해독 능력 조사
- 특수 언어 사용 조사

유아의 언어 발달 조사는 국어원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이며 또한 국어원보다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장기간의 집중 연구 과제이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기존의 관련 연구 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령별 국어 능력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따로 조사팀이 운영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과 범위가 넓은 프로젝트이다. 내년에는 1차적으로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어 능력의 측정 방법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연령별 국어 능력 평가 방법으로 가장 쉬운 것은 어휘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시험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시험 조사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문자 해독 능력 조사는 한글, 한자, 영문자, 기타 외국 문자의 해독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몇 개의 짧은 설문 문항으로 인구 통계 조사 시험에 조사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은 나라임을 자랑하지만 연령이 높은 여성, 고립된 지역의 주민 중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인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영문자의 경우는 연령이

높거나 여성이거나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수록 더욱더 문자 혜택률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⁹⁾

특수 언어 사용 조사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특수 언어 사용 및 교육 실태 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언어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 학교의 교사 또는 장애인 협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2.3. 사회 언어적 측면 - 언어 변동 조사, 언어 적응 조사

사회 언어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관심에서 비롯한 여러 연구 과제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순수히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 과제로 논의된 것은 언어 변동에 대한 조사이다. 언어 변동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대중 매체의 발달로 빠른 속도로 언어가 변화되고 있다. 음운 변동, 어휘 사용 변동, 경어법 변동 등은 우리의 언어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어법 변동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상황과 장소, 연령층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또한 사회언어학의 주요 변수인 계층, 직업, 연령에 따른 언어 사용 조사도 장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계층별 언어 사용 조사는 주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 구성원 간에 사용하는 어휘 양상, 대화 방법, 인사 습관 등

-
- 8) 실제로 이들을 위한 한글학교와 한글학원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최근 들어 보이고 있다.
 - 9) 현재 광고 문안에 영문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광고 심의 규정에는 영문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Have a good time'처럼 이 규정은 이제 거의 사문화되었다. 많은 노인들은 영문자로 되어 있는 전자 제품의 모델명을 읽을 줄 몰라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주소비 집단은 아니지만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을 조사하는 것으로 계층간에 언어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할 계획이다. 직업 언어의 경우는 거의 은어라고 할 정도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모두가 우리 언어 자산일 뿐 아니라 직업간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 역시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위의 주제들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약간씩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런 점을 방지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조사가 아닌 것은 개인 연구자들이 연구 계획을 제출하면 이 중 책임자를 선정하여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언어 적응 조사는 크게 두 집단—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의 언어 적응 과정과 양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들의 숫자는 아주 미미하지만 한국 사회를 전망할 때 이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 분명하며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이 주요 사회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된다고 할 때 남북 언어 차이에 의한 남북한 주민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언어 적응 과정을 조사하여 통일 후 발생할 언어적 통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언어 문화적 측면 - 문화 환경 조사와 언어 의식 조사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할 실태 조사의 내용은 문화 환경 변천 조사, 문자 사용 변천 조사, 언어 및 언어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 등이다. 문화 환경 변천 조사는 대중 매체의 언어 중 대중문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언어 환경에 대한 조사를 뜻한다. 대중 매체의 언어에 대한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인쇄물보다 그 파급력이 높다. 실제로 문화관광부에서는 대중 매체가 언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감지하고, 2001년 국어 문화 지수 개발과 2003년 국어 실태 지수 개발 용역을 통하여 대중 매체의 언어에 대한 부분적 조사를 이미 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목적은 문화 지수, 실태 지수의 산정 방법에 초점을 맞추

었기 때문에 실제 문화 환경의 변천에 대한 고찰을 하지는 못하였다.

국어 문화 지수¹⁰⁾ 산출을 위하여 민현식 외(2001)는 ‘국어 문화’의 여섯 가지 영역과 측정 항목을 제시하였다. 국어 문화 지수의 6대 영역은 ‘국어 의식 지수, 국어 능력 지수, 국어 특질 지수, 국어 행동 지수, 국어 환경 지수, 국어 정책 지수’로 이 6대 영역은 대부분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조사·연구 내용과 겹친다.¹¹⁾ 이 중 문화 환경과 관련되는 지수는 국어 환경 지수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대중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 언론, 상업, 학문, 체육, 과학, 통신, 종교 등 다양한 분야별 언어 지수를 국어 환경 지수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모두를 지수화하여 국어 문화 지수를 산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분야의 언어적 특성을 조사·연구하는 것이 국어 문화 지수를 산출하는 올바른 방법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방법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지수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최명옥 외(2003)에서는 국어 실태 지수¹²⁾ 측정을 위하여 앞서의 연구에 비하면 국어 실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국어 실태 지수는 국어 의식 지수, 국어 능력 지수, 국어 사용 지수 세 가지 영역으로 산정한다. 국어 의식의 하위 영역은 가치, 능력,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어 능력은 듣기, 어휘, 어법, 읽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 사용 지수는 신문, 방송, 상표, 대중가요, 인터넷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국어

10) 국어 문화 지수란 ‘국어 문화 전반에 걸친 실태 지수를 바탕으로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통계언어학적으로 처리하여 지수로 계량화한 것’을 뜻한다(민현식, 2001).

11) 이 중 국어 의식 지수나 국어 정책 지수는 국민들의 국어 또는 외국어에 대한 의식, 국어 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자 정책에 대한 선호 등으로 ‘언어 및 언어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와 유사하다. 또한 국어 특질 지수, 국어 행동 지수는 ‘언어 변동 조사’와 유사하고 국어 능력 지수는 ‘국어 능력 조사’, 국어 환경 지수는 ‘문화 환경 조사’와 유사하다.

12) 최명옥 외(2003)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13) 신문은 3일치 사회면 기사를 대상으로, 방송은 1주간의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상표는 1월부터 4월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대중가요는 상반기(1월~6월) 동안 매일 집계된 음반 판매량 1위부터 20위까지의 음반에서 대표곡을 뽑아, 인터넷은 네이버(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포털사이트)의 토론

사용 지수의 세부 지표는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영역이 비교적 잘 나누어진 것에 비하면 지표의 내용이 빈약하다. 그러나 신문이나 방송, 상표, 대중가요 등 대중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영역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는 다른 어느 영역에서의 사용 빈도보다 중요한 실태 지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들 영역에 대한 정기적인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 조사는 우리 어휘의 사용 변화, 더 나아가서는 언어 의식의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다. 앞으로 문화 환경 변천 조사는 문화 환경의 변천을 가늠할 수 있는 세부 지표를 더욱 확장하고 하위 영역도 영화, 광고, 잡지 등을 포함하여 언어 문화 환경의 변화를 추적할 예정이다.

문자 사용 변천 조사는 한자, 영문자 등 외래 문자의 사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과학 기술계, 정보 통신계, 기업 등 첨단 분야와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한 분야의 문자 사용 양상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문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 사업이다.

언어 및 언어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는 국민의 언어와 언어 정책에 의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사업으로 정기적·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소개한 국어 문화 지수나 국어 실태 지수 산출에서도 언어 및 언어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가 있었다. 민현식 외(2001)에서는 국어 의식 지수의 하위 지수로 모국어 의식 지수, 외국어 의식 지수, 한국어 호감도 지수, 언어 예절 인지 및 준수 지수를 두었고, 최명옥 외(2003)에서는 국어 의식을 국어 가치에 대한 의식, 국어 능력에 대한 의식, 국어 사용에 대한 의식으로 하위 범주화하고 국어 자긍도, 국어 애정도, 한글 자긍도, 국어 능력 자기 평가도, 어문 규범 준수 의식도, 외래어·외국어 기피도 등 6가지 측정 항목을 만들어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⁴⁾

언어 의식에 대한 개인적 조사는 眞田信治·任榮哲(1993)에서도 볼 수 있는데 1988년 서울을 비롯한 9개 지역의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자

게시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4) 조사 대상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제주, 강릉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일반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 기입식 설문 조사를 하였다. 경어 의식, 방언·표준어 의식, 외국어 의식, 한국인의 일본어에 대한 이미지를 주요 항목으로 하여 일본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는데 이중 경어 의식이나 방언·표준어 의식, 외국어 의식 등은 언어 의식 조사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언어 및 언어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는 이처럼 언어 의식과 언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내용으로 설문 문항을 만들어 전국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정기적으로 지속하여 언어 의식의 변화와 언어 정책에 대한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언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3. 맺음말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사업은 이름만큼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서에는 다양한 사업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성과가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언어학 연구 분야는 대학에서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도 많지 않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 또한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측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언어학자들의 수가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길러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이 분야에 관심은 갖고 있었으나 연구 여건 때문에 쉽사리 연구를 시작하지 못한 연구자가 있다면 국어원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10년 동안의 단기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언어 실태 조사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지속 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지속 사업으로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 연구 사업의 성과물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여 언어학계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도 연구 성과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어원에서는 사업 초기부

터 언어학자뿐 아니라 사회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문화학자, 언론정보학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구도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언어학계뿐 아니라 언어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4), ‘<토론회> 새로운 표준어 정책의 모색을 위하여’, “새국어생활 제14권 제1호”.
- 국립국어연구원(2004), “주요 국가의 사회언어학 연구 동향”, 국립국어연구원.
- 국어조사연구위원회(1972), “된소리 및 긴소리 연구”, 서울.
- 김선철(2002),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연구원.
- 민현식 외(2001), “국어 사용 실태 지수 개발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 이운영(2001), “국어 교사의 표준어 사용 실태 조사(II)”, 국립국어연구원.
- 이현복(1987), ‘한국어 표준발음 실태조사’, “말소리 11~14”.
- 張泰鎭(1982), “國語社會學”, 螢雪出版社.
- 정희원(1997), “국어 교사의 표준어 사용 실태 조사(I)”, 국립국어연구원.
- 조남호·양명희(2004), “언어 실태 조사 장기 계획”, 국립국어연구원.
- 眞田信治·任榮哲(1993), “社會言語學의 展開”, 時事日本語社.
- 최명옥 외(2003), “국어 실태 지수 개발”, 문화관광부.
- 최미숙 외(2000),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어 기초학력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www.kice.re.kr
- 최혜원(2001),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최혜원(2002), “표준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